

경제성 없는 홍천·횡성지역 LNG공급 반대

● 한국LPG가스공업협회 ●

강원도 홍천·횡성주민들이 LNG공급요청을 위한 국회 청원과 관련하여 국회 산자위와 청원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LPG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. 그 내용을 게재한다.

1. 우리 LPG업계는 LNG보급 전에는 연탄을 대체하여 전국 가스시대를 열었으며, LNG보급 이후에는 경제성 있는 지역은 LNG가 보급됨에 따라 LNG공급이 곤란한 지역(달동네, 농·어촌 및 도서벽지 등)의 서민연료로 주로 공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2. 그런데, 최근 국회에 홍천·횡성지역은 경제성이 없어 LNG 공급이 어려우니 정부에서 홍천·횡성지역 거주자를 위하여 초기시설투자비 및 운영손실금을 지원해달라는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.
3. 이에 대해 LPG업계는 경제성 없는 지역의 LNG 공급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, LPG산업을 붕괴시키며, 국가에너지안보 및 가스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강력 반대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홍천·횡성지역 LNG 조기공급 건의에 대한 LPG업계 의견

끝.

2005. 5. 24

한국LPG가스공업협회 회장 남 석 우
 한국LPG가스판매협회 회장 김 창 기
 주식회사 E1 대표이사 구 자 용
 SK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세 광

홍천·횡성지역 LNG 조기공급 건의에 대한 LPG업계 의견

□ 홍천·횡성지역 LNG조기 공급 청원

- 강원지역 이광재,이계진,허천,조일현의원 소개로 국회 산자위 청원
- 홍천·횡성지역은 경제성이 없어 LNG 공급이 어려우니 정부에서 초기시설투자비 및 운영손실금을 지원 요청

□ LPG 업계 의견

홍천·횡성지역 LNG공급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, LPG산업을 붕괴시키며, 국가에너지안보 및 가스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강력히 반대

<국민 혈세 낭비 및 불공정거래 조장>

- LNG공급시 저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

각하나 현재 공급되고 있는 LPG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임 (현재보다 같거나 8% 저가)

* LPG도 LNG와 같은 청정연료이며, LNG보다 저장/수송/사용이 편리

○ 오히려 경제성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LNG 공급시 정치논리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되는 일을 초래할 것임

(기존 LPG투자 시설 유휴화 및 중복투자로 국가경제 손실)

○ 흥천·횡성지역은 LPG수요가 연간 10,000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서 LNG공급시 공급의 효율성이 없으며, 타지역 소비자가 흥천·횡성지역 투자비를 부담해야 함 (춘천/원주 소비자가 추가 투자비용 부담)

○ 또한, 정부/가스공사가 재정지원시 경쟁연료인 LPG뿐만 아니라 타연료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

○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19조(공사비부담)에도 위배

<흥천·횡성지역 LPG vs LNG 가격 비교>

구분	강원도시가스 (춘천, LNG배관) (원/㎡)	LPG집단공급 (원/㎡)	비고
도매업자	442.63	1,161	
소매업자	149.00	200~300	
계	591.63 (650.79)	1,361~1,461 (1,497~1,607)	()부가세 포함
천Kcal가격	61.98	62.38~66.96	LNG: 10,500Kcal/㎡ LPG: 24,000Kcal/㎡
가격지수	100 (93~99)	101~108 (100)	

<LPG산업 붕괴 및 서민층 부담 가중>

○ LNG는 배관을 통하여 대도시 위주로 공급하고, LPG는 LNG 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은 중소도시와 농·어촌 및 도서지역 등에 용기에 저장된 가스를 공급 (역할 분담)

○ LNG 중심의 보급 정책 실시로 LPG/LNG 불균형 심화되고 있음

* 최근 10년간 LNG(도시가스)는 334% 증가, LPG(프로판)는 40% 감소

<LPG vs LNG 가정상업용 소비 추이>

(단위:천톤,천가구)

구분	'95	'00	'03	'04	변천량	증가율
LPG	3,284 (10,100)	2,359 (8,533)	2,293 (7,906)	2,065 (7,675)	2,043 (7,475)	Δ4.6% (Δ3.0%)
LNG	2,961 (3,638)	6,847 (7,612)	8,834 (9,743)	8,965 (10,371)	9,900 (10,600)	12.8% (11.3%)

주) ():사용가구수

○ 지방 중소도시까지 무리하게 LNG를 보급할 경우 상대적으로 LPG산업은 기반을 상실함에 따라 붕괴될 것임

○ 또한, LPG는 LNG 대체로 인한 수요감소시 가격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LNG 공급이 불가능한 농·어촌 및 도서지역의 LPG 소비자 부담 가중

<국가에너지안보 및 가스시장의 안정성 저해>

○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에너지원간의 적정역할 분담은 에너지안보 및 비상시 대응을 위해 필요

- 특히, LPG는 LNG와 상호대체제로서 LNG 수급 위기 발생시 보완 가능

○ LNG 국제가격 상승시 국가경제에 큰 부담 - LNG는 저가 및 친환경성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큰 폭으로 수요 증가

→ 공급부족 현상 발생 우려

- 최근 논의중인 천연가스수출국기구(ONGEC) 결성 시, 도입가격 상승 전망

* LPG도 '94년 이전에는 LNG보다 저가였으나, 수요초과 현상이 발생한 '95년 이후에는 고가 형성

<정부정책 일관성 상실>

○ 경제성이 낮거나 없는 지역에 대한 무리한 LNG보급확대를 지양함으로써 LPG-LNG간 적정역할 분담 (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, '02년)

→ 정부/가스공사는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, 국내 가스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열악한 LPG시장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급 확대 추진은 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국민의 불신과 LPG업계의 저항 초래